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9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13.

다. 회 부 일 : 2026. 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장령·경로현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목 및 제1항).

현행	개정안
第6條(老人의 날 등) ① 老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u>老人의 날</u> 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② ~ ④ (생략)	第6條(<u>경로의 날</u> 등) ① ----- ----- ----- ----- <u>경로의</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재 노인과 관련된 법정 기념일(월)로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10월 2일) 외에 ‘경로의 달’(10월), ‘어버이날’(5월 8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효의 달’(10월) 등이 있음.

< 노인 관련 법정 기념일(월) >

근거법률	법정 기념일(월)
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10.2.) / 경로의 달(10월) / 어버이날(5.8.)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효의 달(10월)

- 1990년 제45차 유엔 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과 겹치는 점을 고려

하여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였고, 1997년 8월 8일 「노인복지법」에도 이를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10월 2일에 노인강령·경로현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개정안은 ‘노인의 날’ 명칭을 존경의 의미가 담긴 ‘경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학대 사례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노인학대 발생 현황(2019~2024) >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인학대 건수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특히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경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노인의 날’ 기념일의 취지(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와 행사목적(노인에 대한 감사 및 격려)에 부합하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본 또한 매년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법정 공휴일)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지혜를 공경하는 날로 기리고 있음.

< 노인의 날 관련 해외 사례 >

구분	명칭	일자	주요 내용
UN	국제 노인의 날	매년 10월 1일	• 1990년 유엔총회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제정
미국	세계 시니어 시민의 날	매년 8월 21일	• 1988년 미국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노인들의 성취와 사회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공포
일본	경로의 날	매년 9월 셋째 월요일	• 일본의 법정 공휴일로,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지혜를 공경하는 날
중국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	• 전통 명절인 중양절을 1989년부터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효도와 경로사상을 고취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개정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97.8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 날’을 지정한 이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노인의 날’ 취지는 ‘사회적 관심과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양’하고, ‘노인의 기여와 헌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볼 때,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는 현재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청려장(靑藜杖)¹⁾ 증정 등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97.8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 날’을 지정한 이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노인의 날’ 취지는 ‘사회적 관심과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양’하고, ‘노인의 기여와 헌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볼 때,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는 현재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유
-----------	--

1)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임

	공자 포상, 청려장 증정 등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임.
행정 안전부	◦ 개정안은 기존 기념일에 대한 명칭 변경의 건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음.
한국노인 종합복지 관협회	◦ 경로라는 단어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공경의식을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 다만, 용어의 변경이 곧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로’라는 단어가 가진 고착화된 이미지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사회적으로 노인의 의미가 다양해지는 만큼, 특정 가치(경로)에 국한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현재의 ‘노인의 날’ 명칭 유지가 타당하며, 명칭 수정과 같은 형식적 변화보다 노인 인권 증진 및 예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499